

통일교육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김태훈** · 김영순***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통일교육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지와 학위논문 총 1,286편의 논문 제목에서 2회 이상 등장하는 441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연결, 근접, 매개중심성을 분석하여 통일교육 연구 주제의 동향을 정부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통일교육 논문 키워드 간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시기별 연구 수는 노무현 정부까지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감소하였으며, 거의 모든 시기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키워드는 ‘학교’였다. 시기별로 중심성을 분석했을 때, ‘평화’, ‘사회’, ‘과정’, ‘도덕’, ‘초등’이 공통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키워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최근에 요청되는 연구주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교육 관련 연구가 지금까지 어떠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한 것이며, 향후 연구되어야 할 방향을 탐색할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 주제어: 통일교육 연구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연결중심성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405802).

**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제1저자
논문 및 저서 김태훈·김영순. 2019. “다문화교육론 수업 참여 대학원생의 학습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5권 3호. 외 다수.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학문 영역에서도 통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내 통일 분야의 연구는 ‘선 평화, 후 통일’의 정책 기조를 수립한 1970년대 이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한만길 외, 2001), 교육계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것도 1970년대 이후부터다. 그 즈음에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소(현 통일교육원의 전신)에서 통일교육 자료 개발 및 연구가 적극적으로 수행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확립하려는 연구들도 꾸준히 이어져왔다(이재봉 외, 1991; 유석렬 1994; 박찬석, 2007; 박성춘, 2012; 김하연, 2018).

2020년은 남북분단 75주년이 되는 해이며, ‘상호 존중, 화해 협력, 신뢰 증진’(통일교육원, 2020)의 기본 정신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었지만, 통일교육의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박성춘, 2012). 일부 통일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박정원, 2010; 김석향, 2015; 전현준, 2015; 안제노·허정필, 2016)은 통일교육 자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통일과 관련된 일반적인 경향이나 연구방법론에 초점을 두어서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통일교육 연구동향의 범주와 빈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송명현 외, 2016; 손수민, 2019; 윤혜순, 2016)은 객관적인 범주체계로 분석하였으나 개별적인 연구 주제에 대한 빈도분석이라는 점에서 연구동향을 단순화시킬 위험이 있다. 하나의 연구는 여러 영역에 동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연구주제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연구 키워드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연구」 학술지를 분석한 박찬석(2014)의 연구가 통일교육의 연구동향을 키워드 관계망으로 분석하였지만, 이는 단일 학술지의 연구성과만 분석함으로써 국내 통일교육의 연구동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빅데이터 분석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 방법으로 국내 통일교육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언어로 된 텍스트를 네트워크 분석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이수상, 2014), 주요 단어 사이의 관계를 부호화하고, 관련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양승돈, 2013). 여기서 언어 텍스트의 개념은 의미(semantic), 개념(concept), 단어(word), 키워드(keyword), 텍스트(text)등으로 표현되고 있지만(박치성·정지원, 2013), 보통 키워드(핵심어)로 표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임운진·손다미, 201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주요 단어들의 빈도수 파악 외에 주요 단어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묘사하여 중요한 개념과 각 개념들 간의 관계와 강도까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서준일, 201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도구에는 NetMiner, UCINET, NetDraw, Pajek, Gephi, R의 SNA패키지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수상(2014)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소프트웨어는 NetMiner, UCINET/NetDraw가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동향의 분석방법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채택한 이유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자료 분류 및 해석에서 벗어나 양적방법론과 객관적 통계에 입각한 결과를 추출하여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혜연·정희모, 2015). 또한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많은 데이터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손쉽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진행된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동

향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학술지와 학위논문에서 수행된 통일교육의 연구동향을 시기별로 살펴봄으로써 통일교육 연구의 과거와 현재를 통찰하고자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연구 키워드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서 향후 통일교육 관련 연구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통일교육 연구의 현황과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시기별 통일교육 연구의 키워드 중심성과 네트워크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통일교육의 연구동향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통일교육 관련 연구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출현 빈도와 연결, 근접, 매개중심성을 분석하여 통일교육 연구 주제의 동향을 시기별로 살펴본 후, 키워드 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통일교육 연구동향 관련 선행 연구

통일부는 1999년 2월 ‘통일교육 지원법’(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 9287호)의 제정에 따라 통일교육의 기본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연 단위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배포하여 통일교육 계획을 공유하고 있다.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하였고, 세부계획은 연 단위 통일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하였다(통일교육원, 2020b). 이러한 통일정책에 따라 최근에 통일교육 분야의 학술연구동향을 분석한 연

구들(김상무, 2018; 김하연, 2018; 김봉제, 2018)이 수행되었다.

김상무(2018)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의 정권 변화에도 통일교육 지침서 내용은 약간의 표현과 강조점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교육 지침서의 내용체계는 통일문제 이해, 북한이해, 통일환경 이해, 통일을 위한 과제 등으로 각 정부마다 대동소이 했으나 자유민주주의와 건전한 안보관에 대한 개념정의는 정부마다 차이가 존재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연구범위가 짧고 연구의 키워드별 관계를 체계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김하연(2018)은 도덕과 교육 분야에서 진행된 통일교육 학술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5개의 학술지에 실린 178개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의 시기, 목적, 방법, 연관 학문, 주제에 따라 분석한 결과, 도덕과 통일교육 연구는 꾸준한 양적 증가를 보였고, 탐색적 연구와 이론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일부 학문과 주제에 연구 역량이 집중되어 있었고 점차 다양한 학문이 활용되며 주제가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술지에 게재된 통일교육 관련 연구를 메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도덕과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 학술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였지만, 5개의 학술지 외의 연구물과 학위논문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가 좁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봉제(2018)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발간된 통일교육 관련 학술논문을 분석하였다.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5개 정부의 20년 동안 논의된 통일교육의 특성을 618편의 논문을 추출하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통일교육의 주류 연구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신뢰, 사상, 교과, 분단, 공동체, 교화, 보편, 이념, 평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의 융합적 연구 주제는

‘인권, 자유, 안보, 교류, 역사, 교과서, 도덕 시민, 교육과정, 문화’, 차세대연구는 ‘교사, 학생, 청소년, 유아, 동독, 독일, 초등, 학교, 역량, 프로그램, 수업’, 그리고 통일교육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요청되는 주제는 ‘정치, 정책, 환경, 통일준비, 미래, 세대, 대학생, 대학, 체제, 정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의의가 있지만, 김대중 전부 이전의 연구동향을 비교할 수 없고, 통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한 현재 문재인 정부 기간의 연구동향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란 특정한 주제 영역의 문헌정보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들 키워드들의 동시출현(co-occurrence) 빈도를 계산한 다음 이 빈도로부터 키워드 사이의 유사성을 계산하여 구성된 네트워크를 말한다(이수상, 2012).

키워드 텍스트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노드(node)’가 되고, 단어들 간의 관계는 ‘링크(link)’가 된다(이수상, 2012: 106-10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에 속하지만 언어 텍스트로부터 특정한 개념들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계량적인 특성까지 분석한다는 점에서 ‘확대된 내용분석’이요 ‘양과 질을 포괄하는 통합적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수상, 2018: 90-91). 이는 특정한 주제 영역의 문헌들로부터 주제어를 추출하고, 각 주제어 쌍의 동시출현 행렬(co-occurrence matrix) 빈도와 유형을 이용하여 키워드의 영향력을 시각화된 네트워크 지표로 제시해주는 분석기법이다(이수상, 2018: 237). 특히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나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은 의미론적 연관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박치성·정지원, 2013: 78-79)는 점에서

연구 동향을 탐색하는 데 적절하고 유용하다.

생성된 키워드 네트워크는 세 가지 중심성 지표(centrality index)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중심성’이란 “한 행위자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이수상, 2012: 255)로서, 0~1의 범위 내에서 주제어의 상대적인 순위를 평가한다. 노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의 세 가지로,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다(Freeman, 1979). 이러한 중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중심성 특징

중심성	특징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이 연결 관계를 얼마나 많이 갖는지 측정 - 값이 높으면 해당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로 쉽게 확산될 수 있어 영향력이 있는 것이며,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논의의 중심 주제로 여겨져 중요하다고 인정됨
근접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노드를 대상으로 한 노드가 네트워크의 중앙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측정 - 값이 높으면 다른 노드들과 짧은 연결거리를 가지고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며 정보를 전체 네트워크로 신속하게 확산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노드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중개자 혹은 매개자의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 측정 - 값이 높은 키워드는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 흐름에 높은 통제력 발휘

연결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해당 노드에 연결된 노드의 개수를 네트워크 전체의 총 노드의 수에서 1을 빼준 값(자신을 제외한 노드 개수)으로 나눈 값이다.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질수록 연결중심성

값이 높아지고, 더 넓은 선택의 폭과 자율성을 갖는다. 연결중심성 값이 높다는 것은 해당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로 쉽게 확산될 수 있어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이준기·하민수, 2012; 이수상, 2014),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논의의 중심 주제로 여겨져 중요하다고 인정된다(최윤정·권상희, 2014). 연결중심성이 높은 경우 네트워크 시각화 지도에서 가운데 위치하게 된다.

근접중심성은 전체 노드를 대상으로 한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의 중앙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 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해당 노드와 나머지 노드들 간의 연결거리의 합의 역수에 총 노드의 수에서 1을 빼준 값(자신을 제외한 노드 개수)을 곱하여 정규화한 값이다. 근접중심성은 노드와 노드 간의 직접적인 연결뿐 아니라 간접적인 연결까지 모두 계산하여 하나의 노드와 다른 노드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근접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노드들과 짧은 연결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해당 노드가 네트워크의 중앙에 가까울수록 정보를 신속하게 전체 네트워크로 확산시킬 수 있다(박은준·김영지·박찬숙, 2017).

매개중심성은 해당 노드가 다른 노드들 간의 연결을 도와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개자 혹은 매개자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노드의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 쌍의 최단거리 경로 중에서 해당 노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로의 비율을 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네트워크상의 두 노드 간 최단거리 경로 중에 해당 노드를 많이 경유하면 매개중심성이 커진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들의 최단 연결경로에 자주 등장하게 되므로, 네트워크 내에서의 정보 흐름에 높은 통제력을 발휘한다. 반면,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가 생략 될 경우 정보 전달력이 낮아져 원활한 의미전달을 방해할 수 있으며, 하나의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의 연결이 어려워진다(박은준 외, 2017).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1) 연구물 추출 및 선정

연구물 추출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통합논문검색(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데이터베이스에서 ‘통일 교육’의 주제어를 검색한 후 서지정보가 요약된 엑셀을 다운로드하였다. 이는 엑셀 프로그램이 분석도구인 NetMiner와의 호환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NetMiner는 (주)사이람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이다.

주제어 검색 대상은 선행연구들(임운진·손다미, 2016; 변진연, 2017)을 참조하여 논문 전체의 내용이 핵심적이고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제목으로 국한하였다. 상세검색으로 논문 제목에 ‘통일 교육’, ‘통일교육’이 들어간 논문들 중에서 국내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9년 말까지 발간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10일에 최종적으로 검색하여 자료를 추출하였다. 초기 검색 결과 학위논문은 479개, 학술지 논문은 1,573개가 추출되었으며, 학술지 논문으로 검색되는 연구물 중에서 단순 기사, 서평, 토론문(논평문) 등 학술논문이 아닌 글 766개를 제외하여 총 1,286개의 논문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키워드 추출 및 코딩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정확한 키워드 추출 절차가 중요하다. 용어와 개념들이 연구자에 따라 다른 키워드로 표현됨에 따라 정제 작업은 필수적이다. 정제작업을 거치지 않은 많은 키워드로 복잡한 네트

워크가 구성되면, 각 키워드들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 분석 이전에 정제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키워드 정제작업은 전체 주제어 목록을 반복해서 살펴면서 교정과 제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인데, ‘교정’이란 추출된 주제어의 외국어, 단·복수, 약어, 띄어쓰기, 품사 변경과 같은 것이다(이수상, 2018: 112-113). 일례로 외래어나 한자어는 한글로 번역하여 ‘커리큘럼’을 ‘교육과정’으로, ‘paradigm’을 ‘패러다임’으로 교정하였다. 또한 한 개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분리되어 두 개의 단어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학교교육’, ‘평화 교육’을 ‘평화교육’으로 교정하였다. ‘제거’는 출현빈도가 높은 주제어 중에서 지나치게 일반적인 개념들을 제거하는 것이므로(이수상, 2018: 113) ‘과제’, ‘연구’, ‘논문’, ‘탐색’, ‘현황’, ‘가능성’, ‘방향’ 등과 같은 개념을 제외어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 키워드도 제외하였는데, 제목에 통일교육이 포함된 연구만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통일교육’을 제외하지 않으면 동시출현 빈도가 왜곡되어 분석에 영향을 미치고, 연구주제의 정확한 동향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임창호, 2014: 16). 이러한 키워드 정제작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키워드 정제 작업

구분	정제 전	정제 후
유의어	(외국어, 외래어 교정) 커리큘럼, paradigm	교육과정, 패러다임
	(띄어쓰기 교정) 학교 교육, 평화 교육	학교교육, 평화교육
제외어	통일교육, 과제, 연구, 논문, 탐색, 분석, 조사, 현황, 실태, 가능성, 개선, 방향, 방안, 활용, 논문, 중심, 모색, 장, 관련, 고찰, 관점	

2. 자료분석

통일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 자료의 기초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병행하였다. 동시 출현 빈도 분석은 논문 저자들이 어느 정도 유한하고 정형화된 레퍼토리에서 용어를 선택하며, 여러 학자들이 동일한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해당 연구 영역에 대한 인지구조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는 것(Nicola De Bellis, 2010: 174-175)을 전제한다. 즉, 통일교육 관련 논문 제목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키워드의 동시출현 빈도와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떤 주제가 연구되었는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키워드 중심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NetMiner 프로그램에서 ‘논문-키워드’ 구조를 ‘키워드-키워드’ 매트릭스로 변환하였다.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서 키워드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측정하고, 다른 키워드들의 거리와 연관성을 측정하여 중요한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중심성 지표 3가지를 사용하였다(연준모, 2018; 이수상, 2014; 임윤진·손다미, 2016).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중심성 지표인 연결중심성으로 직접 연결된 이웃 노드들의 수를 알아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다른 노드들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노드의 중심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으로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또한 키워드의 네트워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시각화 작업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시각화란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가 잘 드러날 수 있게 노드(키워드)를 배치하고, 연결 구조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노드(키워드)와 링크(연결 선)를 스타일링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Spring Map이 가장 대표적이다(변진언, 2017). Spring Map은 가상의 스프링이 있

다고 가정하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통해 노드를 배치하는 알고리즘이며, 인접한 단어들은 서로 연결고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Spring Map을 기반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하였다. Spring Map에서 노드의 크기는 해당 키워드의 논문 출현 빈도에 비례하여 표시되도록 설정하였다. 노드와 노드 사이가 짧으면 네트워크에서 서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노드는 연결되는 개념이 없음을 의미한다. 동시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는 네트워크에서 중앙에 위치하며, 두 단어 사이의 간격이 가까우면 상호 관계가 강하다는 의미다. 선(Link)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함께 연구된 주제라는 의미인데, 두 노드의 동시출현빈도가 높으면 선의 두께가 굵게 나타나고 약하면 얇게 나타난다. 선의 화살표 방향은 키워드 간 연결 관계의 순서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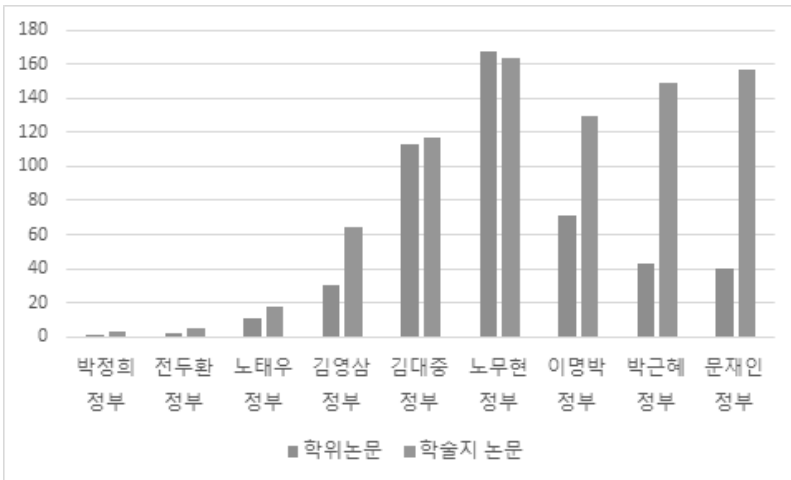
IV. 연구결과

1. 시기별 통일교육 연구의 현황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시기별 준거는 정부의 통일정책 변천과정을 비교하는 자료(통일교육원, 2018)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정부 시기를 준거로 하는 이유는 정부 시기와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시기가 대부분 맞물려 이루어지는 것(송명현 외, 2016)에 근거하여 이러한 시기적 흐름이 통일교육 연구의 발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으로 그 추이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정부 시기별로 분석 대상 논문의 현황은 다음 [표 3], <그림 1>과 같다.

[표 3] 정부 시기별 분석 대상 논문 수

구분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소계	비율
박정희 정부 (1963~1979년)	1	3	4	0.33%
전두환 정부 (1980~1988년)	2	5	7	0.55%
노태우 정부 (1988~1992년)	11	18	29	2.26%
김영삼 정부 (1993~1997년)	30	64	94	7.31%
김대중 정부 (1998~2002년)	113	117	230	17.88%
노무현 정부 (2003~2007년)	168	164	332	25.81%
이명박 정부 (2008~2012년)	71	130	201	15.62%
박근혜 정부 (2013~2016년)	43	149	192	14.93%
문재인 정부 (2017~2019년)	40	157	197	15.31%
합계	479	807	1,286	100%



<그림 1> 정부시기별 분석 대상 논문 추이

통일교육 관련 논문은 1970년도부터 시작되어 점차 증가하였고,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추이를 볼 때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민주정부 이후를 비교해보자면,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의 연구물이 더 많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연구물은 37.86%이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의 연구물이 5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학술지 논문의 수가 많은 점이 특징적이다. 향후 더 연구가 추가되면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어서 연구물의 출처와 발행기관을 분석하였다. 10편 이상 학술논문이 게재되고, 학위논문이 발행된 기관의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10편이상 게재 / 발행된 논문의 출처

구분	출처
학술 논문	통일전략 46, 도덕윤리과교육 43, 윤리연구 42, 통일문제연구 36, 초등도덕교육 36, 윤리교육연구 25, 북한 18, 평화학연구 18, 통일교육연구 16, 한국동북아논총 14, 정책과학연구 11, 기독교교육논총 10, 사회과학연구 10, 인문사회교육연구 10
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50, 춘천교육대학교 24, 이화여자대학교 23, 한국교원대학교 22, 제주대학교 16, 경남대학교 13, 서울대학교 12, 공주대학교 12, 경희대학교 11, 단국대학교 11, 강원대학교 10, 경상대학교 10, 경인교육대학교 10, 고려대학교 10, 부산대학교 10, 숙명여자대학교 10, 연세대학교 10, 인천대학교 10, 진주교육대학교 10

통일교육 관련 학술논문은 「통일전략」(46)에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도덕윤리과교육」(43), 「윤리연구」(42), 「통일문제연구」(36), 「초등도덕교육」(36)이 뒤를 잇는다. 학위논문은 서울교육대학교(50)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었고, 춘천교육대학교(24), 이화여자대학교(23), 한국교원대학교(22) 순으로 많았다.

2. 통일교육 연구의 키워드 분석

통일교육 연구의 핵심 이슈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최소 2개 이상의 논문에서 사용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상위 키워드 분석은 해당 단어와 관련된 가장 민감한 주제들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통일교육 연구로 선정된 1,286편의 논문 제목에서 키워드 정제 작업을 통해 2회 이상 등장한 키워드를 추출하여 441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워드 클라우드란 어떤 키워드가 많이 출현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에 좋은 기본적인 시각화 자료이다. 통일교육 관련 연구에 나타난 키워드 상위 300개의 워드 클라우드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통일교육 연구의 워드 클라우드

<그림 2>의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키워드의 글자 크기가 출현 빈도에 비례하여 표현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 ‘초등’, ‘도덕’, ‘평화’ 등의 단어가 다른 키워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수치화하여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 키워드 출현빈도

순위	키워드	출현 빈도(횟수)	순위	키워드	출현 빈도(횟수)
1	학교	280	11	접근, 변화	60
2	초등	147	12	한국	59
3	도덕	112	13	통합, 모색	55
4	평화	92	14	의식	53
5	사회	89	15	남북한, 고등	52
6	중심	88	16	학습	51
7	과정	83	17	유아	50
8	내용	73	18	정책	47
9	활성, 교사	68	19	북한	45
10	인식	63	20	대학	44

[표 5]를 살펴보면 통일교육 관련 논문 키워드 중에서 ‘학교’가 280회로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뒤를 이어 초등과 도덕이 100여회, 평화가 92회, 사회, 중심, 과정이 80여회 등장하였다.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키워드가 통일교육 연구 주제로 여러 번 다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동향에서 중요한 개념이라는 뜻이다.

통일교육 관련 논문 제목에 포함된 키워드의 단순 출현빈도를 중심으로 통일교육 논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살펴보았는데, 단순 출현 빈도만으로 키워드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은 그만큼 통일교육 연구 주제로 많이 다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통한 중심성 측정값도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시기별 통일교육 연구의 키워드 중심성과 네트워크 분석

앞서 나누었던 정부 시기별로 통일교육 연구의 키워드 중심성과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각 시기별 통일교육 연구의 제목에서 2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만 추출하였고, 출현빈도와 세 가지 중심성에 대한 간결한 분석과 비교를 위하여 상위 10위권으로만 제한하였다.

1) 1997년까지 통일교육 연구

다른 정부 시기의 논문 수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기간에 축출된 논문을 합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에서 축출된 논문 중 가장 오래된 논문은 1970년대에 작성된 논문이다. 1970년부터 1997년까지 연구된 논문은 총 134개이며, 2회 이상 등장한 논문 제목의 키워드의 출현빈도와 중심성 측정값을 상위 10개로 나열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중심성 지표에 근거한 상위 10개 키워드(1997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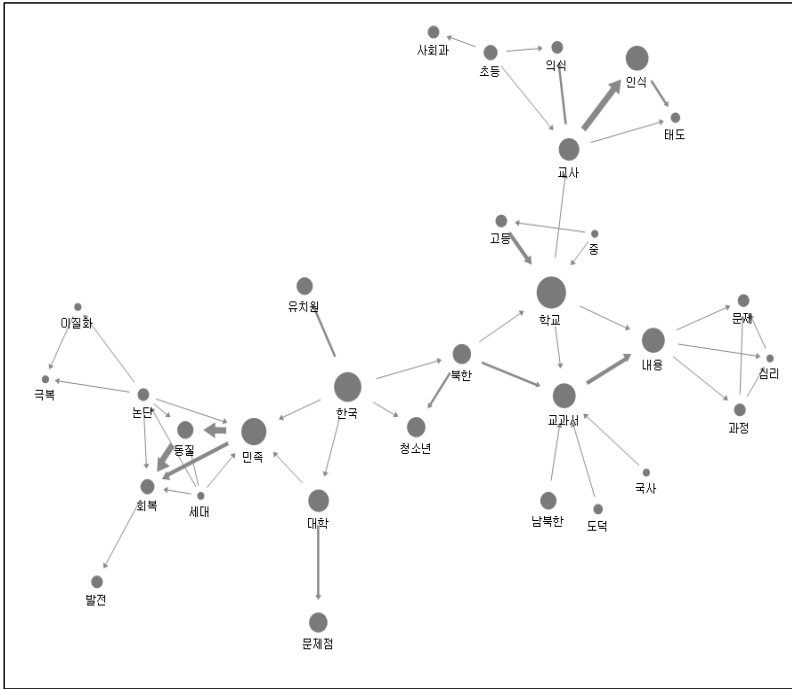
순위	출현빈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1	학교	15	교과서	0.1190	교과서	0.1385	학교	0.0174
2	한국	12	회복	0.0952	문제	0.1182	내용	0.0156
3	민족	11	민족	0.0952	내용	0.1134	교사	0.0098
4	인식	9	학교	0.0714	회복	0.1071	교과서	0.0092
5	내용	9	문제	0.0714	심리	0.1028	북한	0.0058
6	교과서	9	동질	0.0714	민족	0.0952	회복	0.0034
7	정책	8	태도	0.0476	과정	0.0881	민족	0.0034
8	대학	8	청소년	0.0476	동질	0.0850	논단	0.0011

9	교사	8	의식	0.0476	태도	0.0802	정책	0.0005
10	청소년	7	심리	0.0476	학교	0.0779	대학	0.0005

출현빈도만 보면 ‘학교’ 15회, ‘한국’ 12회, ‘민족’ 11회, ‘인식’, ‘내용’, ‘교과서’가 9회 출현하였다. 중심성은 측정값의 수치 그 자체보다는 키워드 간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변진언, 2017). 중심성 지표에 근거해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도출한 결과, 출현빈도와 세 가지 중심성 지수가 모두 10위 안에 포함된 핵심 키워드는 ‘학교’, ‘민족’, ‘교과서’다([표 6] 참조). 이는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인 셈이다. ‘한국’(12회)과 ‘인식’(9회)은 출현빈도만 높을 뿐 세 가지 중심성 지수가 모두 낮아 실제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키워드로 드러났고, ‘회복’은 출현빈도는 낮지만 세 가지 중심성이 모두 높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어로 확인되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연결, 근접, 매개중심성 순위에 나타난 키워드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모든 중심성 측정값이 가장 큰 키워드는 ‘교과서’다. 이는 교과서와 직접 연결된 키워드가 가장 많다는 것을 뜻하며, 1997년까지 통일교육 관련 논문에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음을 의미한다.

연결중심성의 순위를 보면, ‘교과서’, ‘회복’, ‘민족’, ‘학교’ 순으로 직접 연결된 키워드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는 다른 출현빈도와 매개중심성 측정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전체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높은 키워드로 볼 수 있다. ‘내용’, ‘교사’, ‘교과서’의 매개중심성 측정값도 크므로, 서로 다른 연구 주제를 통합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큰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

1997년까지 나타난 키워드 중, 2회 이상의 빈도를 가진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들의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시각화 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1997년까지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연결중심성에 근거한 키워드의 네트워크 시각화는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높을수록 큰 원(노드)으로, 동시출현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굵은 선으로 나타난다. 총 31개 노드 중 '한국'과 '학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뻗어나가고 있고, '민족-동질-회복'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와 '고등-학교'와 '교사-인식' 그리고 '교과서-내용'으로 이어지는 선이 두꺼운 것으로 보아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

2) 1998-2002년까지 통일교육 연구

1998년부터 2002년 김대중 정부 기간에는 총 230개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키워드의 출현빈도와 중심성 측정값을 상위 10개로 나열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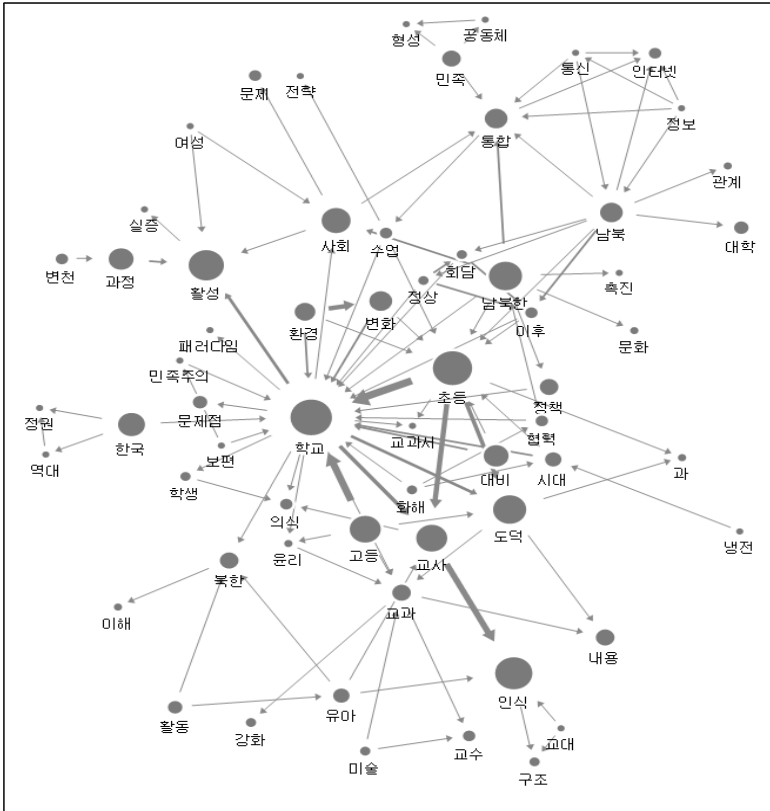
[표 7] 중심성 지표에 근거한 상위 10개 키워드(1998~2002년)

순위	출현빈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1	학교	68	학교	0.2000	학교	0.1885	학교	0.0697
2	초등	38	초등	0.0941	활성	0.1512	통합	0.0199
3	인식	17	통합	0.0705	교과	0.1476	사회	0.0175
4	활성	16	교과	0.0588	의식	0.1470	수업	0.0169
5	도덕	15	활성	0.0470	교사	0.1441	초등	0.0112
6	남북한	15	인터넷	0.0470	북한	0.1376	교과	0.0095
7	교사	14	인식	0.0352	도덕	0.1325	교사	0.0077
8	고등	14	의식	0.0352	사회	0.1313	남북	0.0070
9	사회	13	시대	0.0352	교과서	0.1303	시대	0.0042
10	한국	12	수상	0.0352	윤리	0.1242	인식	0.0040

‘학교’가 출현빈도와 세 가지 중심성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시기 통일교육 관련 연구는 ‘학교’와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고 영향력 있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현빈도는 ‘초등’, ‘인식’, ‘활성’, ‘도덕’, ‘남북한’ 순으로 높았다. 연결중심성은 ‘학교’, ‘초등’, ‘통합’, ‘교과’, ‘활성’ 순이고, 근접중심성은 ‘학교’, ‘활성’, ‘교과’, ‘의식’, ‘교사’ 순으로 높았으며, 매개중심성은 ‘학교’, ‘통합’, ‘사회’, ‘수업’, ‘초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시기에도 세 가지 중심성 상위에 나타난 키워드들은 비슷했지만, ‘초등’ 키워드는 출현빈도와 연결, 매개중심성에서만 높게

나타나고 근접중심성은 상위 10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다른 키워드와는 멀고 ‘학교’라는 키워드만 가까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덕’과 ‘남북한’은 출현 빈도는 높았지만 연결 중심성은 낮게 나타났고, ‘통합’과 ‘교과’는 출현빈도가 낮지만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워드로 볼 수 있다.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1998-2002년까지 통일교육 연구 키워드 간의 소시오그램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1998-2002년까지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1997년까지의 시각화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노드와 네트워크의 수가 훨씬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통일교육 연구의 키워드가 이전 시기에 비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위 [표 7]에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학교’, ‘초등’, ‘통합’을 중심으로 다른 노드들에 연결된 가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키워드들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교-교사’, ‘남북-회담’, ‘남북-관계’, ‘남북-통합’ 등과 연결되어 있다. 즉, 1998~2002년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초등, 고등학교, 학교교사, 남북회담과 관계 남북통합에 대한 연구들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교-교사’, ‘학교-도덕’, ‘교사-인식’으로 이어지는 선이 굵은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준다. [표 7]에서 ‘인터넷’이 연결중심성에서만 상위권에 나타난 것이 특이했는데, 네트워크 시각화 그림을 통하여 ‘통신’, ‘통합’, ‘남북’, ‘정보’와 연관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2003-2007년까지 통일교육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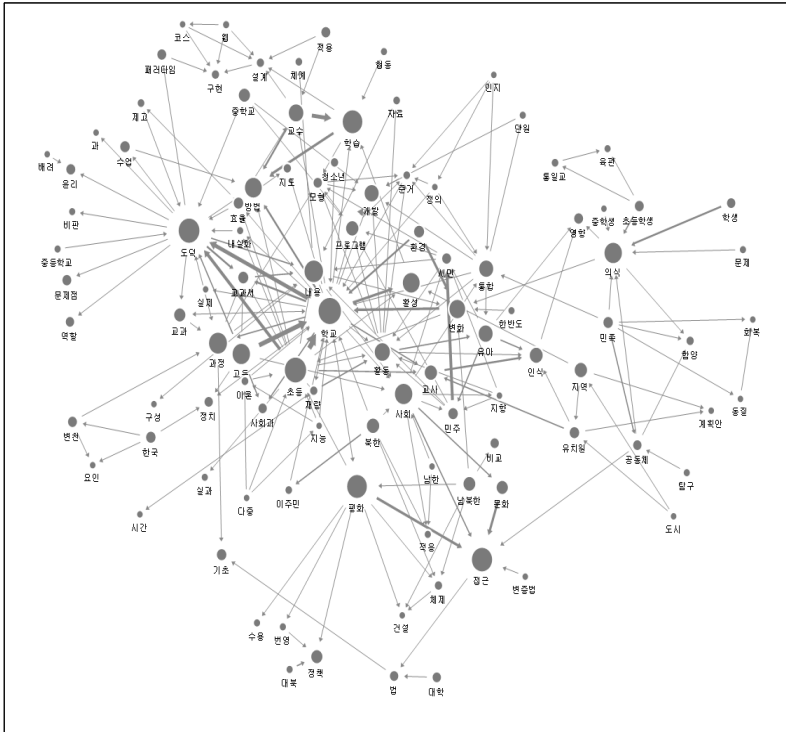
2003년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 기간에는 총 332개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키워드의 출현빈도와 중심성 측정값을 상위 10개로 나열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중심성 지표에 근거한 상위 10개 키워드(2003~2007년)

순위	출현빈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키워드	빈도	키워드	중심성	키워드	중심성	키워드	중심성
1	학교	100	학교	0.1196	학교	0.1846	학교	0.1566
2	초등	58	도덕	0.0769	개발	0.1826	준거	0.0517
3	도덕	40	내용	0.0683	방법	0.1803	변화	0.0514
4	접근	29	개발	0.0683	내용	0.1735	도덕	0.0494
5	학습	23	활동	0.0598	모형	0.1626	사회	0.0379
6	평화	23	준거	0.0512	사회	0.1586	내용	0.0376
7	내용	21	의식	0.0512	학습	0.1557	모형	0.0310
8	과정	20	방법	0.0512	도덕	0.1557	학습	0.0278
9	의식	19	프로그램	0.0427	교과서	0.1538	평화	0.0272
10	사회	19	초등	0.0427	준거	0.1529	의식	0.0266

직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학교’ 키워드가 출현빈도와 세 중심성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 ‘도덕’ 키워드가 많이 출현했으며, 이어서 ‘접근’, ‘학습’, ‘평화’, ‘내용’, ‘과정’ 순으로 나타났다. ‘평화’가 처음으로 출현빈도 상위권에 등장하였고, ‘프로그램’은 연결중심성에서만 상위권에 등장하였다. 연결중심성은 ‘학교’, ‘도덕’, ‘내용’, ‘개발’, ‘활동’ 순이고, 근접중심성은 ‘학교’, ‘개발’, ‘방법’, ‘내용’, ‘모형’ 순으로 높았으며, 매개중심성은 ‘학교’, ‘준거’, ‘변화’, ‘도덕’, ‘사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2003~2007년까지 통일교육 연구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시각화 그림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2003~2007년까지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그림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3~2007년에는 도덕,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 시기에 비하여 더욱 많은 키워드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도덕’, ‘초등-도덕’, ‘고등-학교’, ‘학습-방법’, ‘교수-방법’, ‘교수-학습’, ‘민중-시민’, ‘학교-활성’, ‘변화-학교’, ‘평화-접근’, ‘문화-접근’, ‘학생-의식’으로 연결된 선이 두꺼운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2008-2012년까지 통일교육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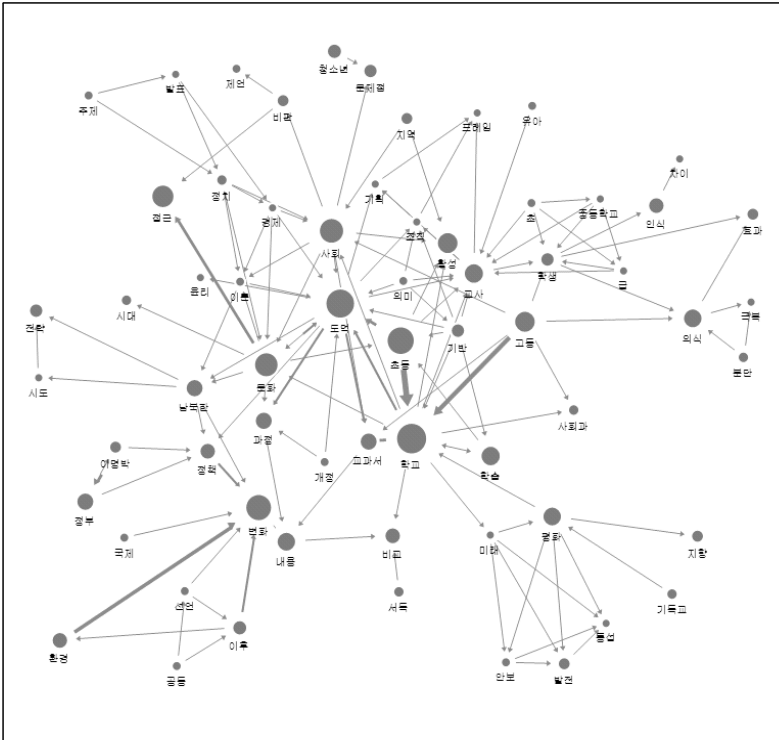
2008년부터 2012년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총 201개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키워드의 출현빈도와 중심성 측정값을 상위 10개로 나열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중심성 지표에 근거한 상위 10개 키워드(2008~2012년)

순위	출현빈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1	학교	45	도덕	0.1111	교사	0.1484	학교	0.0444
2	도덕	25	교사	0.1111	변화	0.1483	도덕	0.0345
3	초등	22	변화	0.0864	도덕	0.1333	문화	0.0288
4	변화	20	학생	0.0617	기획	0.1307	교사	0.0223
5	사회	16	학교	0.0617	조직	0.1269	초등	0.0197
6	문화	15	사회	0.0617	문화	0.1212	학생	0.0181
7	접근	13	문화	0.0617	프레임	0.1192	사회	0.0177
8	활성	12	활성	0.0493	교과서	0.1172	평화	0.0138
9	고등	12	통섭	0.0493	정책	0.1149	미래	0.0123
10	한국	11	조직	0.0493	학생	0.1128	남북한	0.0079

출현빈도는 ‘학교’, ‘도덕’, ‘초등’, ‘변화’, ‘사회’, ‘문화’ 순으로 많았고, 연결중심성은 ‘도덕’, ‘교사’, ‘변화’, ‘학생’ 순으로 나타나서 그동안 상위권에 위치한 ‘학교’가 5위권으로 내려간 점이 특징이다. 근접중심성은 ‘교사’, ‘변화’, ‘도덕’, ‘기획’, ‘조직’, ‘문화’ 순으로 높았으며, 매개중심성은 ‘학교’, ‘도덕’, ‘문화’, ‘교사’, ‘초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도덕’, ‘교사’, ‘문화’는 출현빈도와 세 중심성 모두 높게 나타났다.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 통일교육 연구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시각화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2008-2012년까지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그림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덕’, ‘교사’, ‘변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다. ‘학교’ 다음으로 출현빈도가 많고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도덕’은 ‘교과서’, ‘학교’, ‘과정’, ‘사회’, ‘교사’, ‘윤리’ 키워드와 연결되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노드 오른쪽 아랫방향으로 ‘평화’를 중심으로 ‘미래’, ‘안보’, ‘발전’, ‘통섭’, ‘기독교’, ‘지향’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는데, 노드와 링크가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 ‘평화’는 영향력 있는 키워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교사’ 노드는 ‘유아’, ‘초등’, ‘중등학교’ 등의 노드와 연결되어 다양한 접

근의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문화-접근’, ‘환경-변화’의 선이 두꺼운 것으로 보아 이러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2013-2016년까지 통일교육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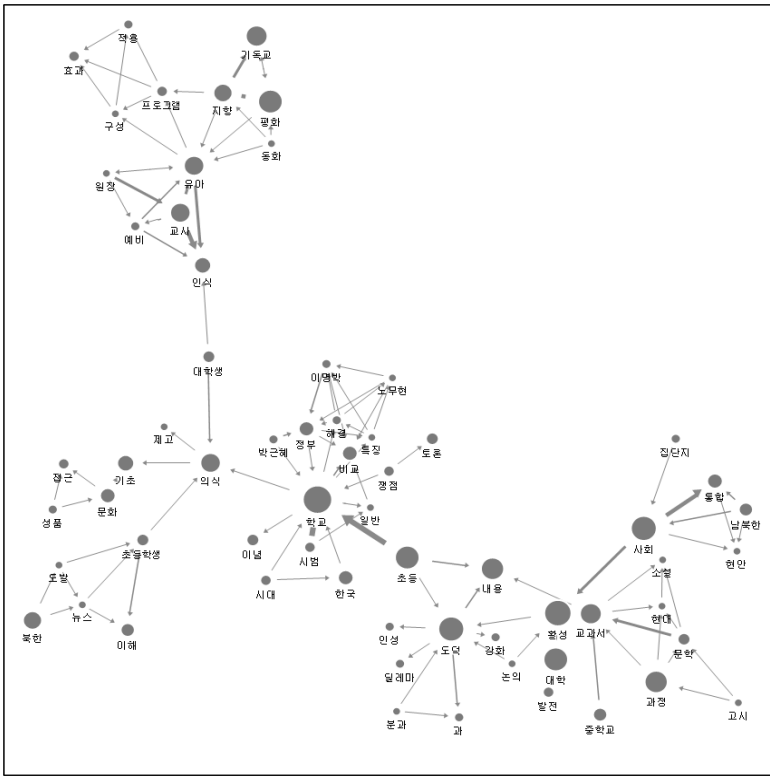
2013년부터 2016년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총 230개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키워드의 출현빈도와 중심성 측정값을 상위 10개로 나열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중심성 지표에 근거한 상위 10개 키워드(2013~2016년)

순위	출현빈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1	학교	36	학교	0.0909	학교	0.0962	학교	0.0127
2	활성	16	유아	0.0681	의식	0.0944	유아	0.0051
3	사회	15	비교	0.0568	비교	0.0914	도덕	0.0049
4	도덕	15	정부	0.0454	기초	0.0821	의식	0.0047
5	평화	13	인식	0.0454	특징	0.0743	정부	0.0041
6	초등	13	도덕	0.0454	제고	0.0707	활성	0.0031
7	대학	13	효과	0.0340	유아	0.0696	해결	0.0022
8	내용	12	활성	0.0340	내용	0.0696	사회	0.0020
9	과정	12	현안	0.0340	해결	0.0681	특징	0.0016
10	기독교	11	현대	0.0340	이념	0.0640	프로그램	0.0013

역시 ‘학교’가 출현빈도와 세 중심성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시 출현빈도에서 2순위 키워드와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다. 이 시기까지도 통일교육 관련 연구는 ‘학교’가 가장 많고 큰 영향력을 끼친 키워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현빈도는 ‘활성’, ‘사회’, ‘도덕’, ‘평화’, ‘초등’,

‘대학’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독교’가 처음으로 출현빈도 상위권에 등장했다. 연결중심성은 ‘학교’, ‘유아’, ‘비교’, ‘정부’, ‘인식’, ‘도덕’ 순이고, 근접중심성은 ‘학교’, ‘의식’, ‘비교’, ‘기초’, ‘특징’ 순으로 높았으며, 매개중심성은 ‘학교’, ‘유아’, ‘도덕’, ‘의식’, ‘정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 가지 중심성의 각 키워드 순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아’는 세 중심성에서 높지만 출현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향력이 큰 키워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2013-2016년까지 통일교육 연구 키워드 간의 소시오그램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그림 7> 2013-2016년까지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와 ‘학교’를 중심으로 연결된 그룹이 있고, 오른쪽 아래 방향에 ‘도덕’, ‘활성’, ‘교과서’, ‘사회’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연결선대로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유아’는 ‘원장’, ‘구성’, ‘프로그램’, ‘동화’, ‘평화’와 연결되어있고, ‘학교’는 ‘초등’, ‘시범’, ‘박근혜’, ‘비교’, ‘쟁점’ 등과 연결되어 있다. ‘초등-학교’와 ‘시범-학교’의 연결 선이 두꺼운 것으로 보아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통합’, ‘문학-교과서’, ‘사회-활성’ 등이 두껍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6) 2017-2019년까지 통일교육 연구

2017년부터 2019년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총 230개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키워드의 출현빈도와 중심성 측정값을 상위 10개로 나열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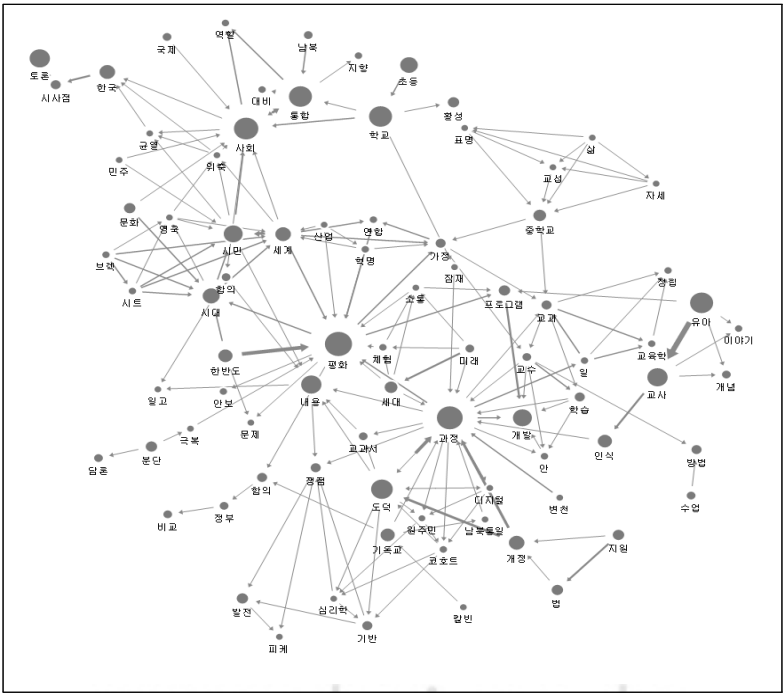
[표 11] 중심성 지표에 근거한 상위 10개 키워드(2017~2019년)

순위	출현빈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1	평화 35	과정 0.0964	내용 0.1664	과정 0.0932
2	과정 27	평화 0.0789	쟁점 0.1563	평화 0.0712
3	사회 22	사회 0.0701	교과 0.1515	시대 0.0421
4	학교 16	세계 0.0526	평화 0.1501	교수 0.0316
5	통합 16	시민 0.0438	개발 0.1473	세계 0.0263
6	유아 16	시대 0.0438	과정 0.1422	사회 0.0259
7	도덕 14	도덕 0.0438	가정 0.1340	가정 0.0241
8	토론 13	내용 0.0438	연합 0.1326	교과 0.0240
9	내용 13	개발 0.0438	피케 0.1261	시민 0.0215
10	교사 13	중학교 0.0350	발전 0.1244	중학교 0.0142

출현빈도 키워드는 ‘평화’, ‘과정’, ‘사회’, ‘학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가 처음으로 1순위에서 밀려났고, 근접중심성에서는 10위 이내에 들지 못했다. 연결중심성은 ‘과정’, ‘평화’, ‘사회’, ‘세계’, ‘시민’ 순이고, 근접중심성은 ‘내용’, ‘쟁점’, ‘교과’, ‘평화’, ‘개발’ 순으로 높았으며, 매개 중심성은 ‘과정’, ‘평화’, ‘시대’, ‘교수’, ‘세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평화’가 출현빈도와 세 가지 중심성에서 갑자기 상위권에 등장하였고, ‘과정’이 모든 순위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평화’와 ‘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2017-2019년까지 통일교육 연구 키워드 간의 소시오그램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8> 2017-2019년까지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평화’와 ‘과정’ 노드가 중심에 위치하여 각각으로 연결되는 선이 이전 시기에 비하여 많으며, ‘한반도-평화’, ‘유아-교사’, ‘디지털-과정’, ‘개정-도덕’, ‘시민-사회’로 연결되는 선이 굵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가장 많은 숫자의 노드가 나타나고 선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보아 연구주제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평화’, ‘세계-평화’, ‘세대-평화’, ‘도덕-과정’, ‘개정-도덕’, ‘디지털-과정’, ‘유아-교사’, ‘교사-인식’, ‘시민-사회’의 연결 선이 두껍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와 연관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통일교육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기존 통일교육 분야 연구동향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분석 범주의 틀에 따라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분류될 수 있는 점과 주요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이소영, 2014; 황서연·김정렬, 2019).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기간인 1970년부터 2019년 12월까지를 6개 정부 시기를 기준으로 제목에 나타난 키워드를 추출하여 출현빈도, 중심성,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시기별 연구물의 숫자만 비교해보면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감소하였다. 이는 김하연(2018)의 연구와 다른 결과인데,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 연구동향을 도덕과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한 까닭으로 보인다. 통일 관련 연구의 숫자는 정치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전현준, 2015). 민주정부 이후를 단순 비교해보자면, 보수정부보다 진보 정부의 연구물이 더 많았다. 전체 비율을 통계로 냈을 때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연구물은 37.86%이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의 연구물이 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북정상회담의 시행 여부 등 남북관계나 통일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의 햇볕정책과 맞물린 7차 교육과정 시기에 통일 교육 관련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분석한 송명현 외(2016)의 연구 결과와 같다.

둘째, 키워드 출현 빈도로 살펴본 특징을 살펴보면, ‘학교’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분석해 보았을 때,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다루어진 키워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학교’, ‘초등’, ‘도덕’, ‘평화’, ‘사회’, ‘중심’, ‘과정’ 등이다. ‘학교’가 많이 다루어진 것은 학교 통일교육이나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기별로도 거의 모든 시기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키워드는 ‘학교’였다는 점에서 통일교육 연구주제가 다소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학교 급별로 볼 때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대상은 ‘초등’이었는데, 이는 김봉제(2018)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각 시기별로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들 중에서 ‘학교’를 제외하여 살펴보면, 1997년까지는 ‘한국’, ‘민족’, ‘인식’, ‘내용’, ‘교과서’였고, 1998~2002년에 빈도가 높은 어휘는 ‘초등’, ‘인식’, ‘활성’, ‘도덕’이었다. 2003~2007년에는 ‘초등’, ‘도덕’, ‘접근’, ‘학습’, ‘평화’의 출현빈도가 높았으며, 2008~2012년에는 ‘도덕’, ‘초등’, ‘변화’, ‘사회’, ‘문화’가 많이 출현하였다. 2013~2016년에는 ‘활성’, ‘사회’, ‘도덕’, ‘평화’, ‘초등’, ‘대학’의 출현빈도가 높았으며, 2017~2019년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통일 교육 관련 연구에는 ‘평화’, ‘과정’, ‘사회’, ‘통합’, ‘유아’가 많이 출현하

였다. 이는 정부별 통일정책 변천과정(통일교육원, 2018: 113)에 나타난 주요 핵심 키워드와 일정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각 정부별 통일정책이 통일교육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와 통일백서에서 이미 많은 통일 관련 연구가 정치적 환경과 관련이 깊음을 시사한 바 있다(김용현, 1996; 한만길 외, 2001; 전현준, 2015).

6개 시기 모두 출현빈도가 10위권 이내인 키워드는 ‘학교’ 뿐이고, 학교(280), 초등(147), 도덕(112), 평화(92), 사회(89) 순으로 많이 출현하였다. 출현빈도 키워드의 추이를 정부별로 간단하게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 ‘민족’ 키워드는 김영삼 정부 이전에만 자주 등장했고 그 이후에는 계속 후순위였다. ‘초등’은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만 상위권에서 나타났다. ‘평화’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들어왔다가 이명박 정부 때 밀려난 후에 박근혜 정부에 반등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 때는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셋째, 중심성 분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시기별로 연결, 근접, 매개중심성 순위에 나타난 키워드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모든 중심성 측정값이 가장 큰 키워드는 출현빈도와 마찬가지로 ‘학교’였다. 통일교육 관련 연구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가 다른 키워드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가장 영향력 있는 키워드라는 의미이다. 모든 시기를 통틀어서 ‘학교’를 제외한 연결중심성 빈도 순위는 ‘평화’, ‘사회’, ‘과정’, ‘도덕’, ‘교사’, ‘초등’ 순이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키워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 연구가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직접 연결되어 많이 수행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매개중심성의 빈도 순위는 ‘사회’, ‘평화’, ‘과정’, ‘도덕’, ‘통합’, ‘초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키워드가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연구 주제를 통합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키워드임이 확인되었다. 근접중심성 순위는 ‘초등’, ‘교과서’, ‘도덕’, ‘사회’, ‘과정’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과 가깝게 위치하여 전체 네트워크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시각화한 네트워크는 시기별 연구동향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Spring Map을 통하여 해당 시기에 어떤 키워드가 높은 출현빈도를 나타냈고, 다른 키워드들과의 연결 관계가 얼마나 높은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연결중심성 상위 10위권에 계속 나타났으며, 다른 시기와 비교해서 해당 시기에만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1997년까지는 ‘교과서’, ‘회복’, ‘민족’, ‘동질’, ‘태도’, ‘청소년’이고, 1998~2002년에는 ‘초등’, ‘통합’, ‘교과’, ‘인터넷’이었다. 2003~2007년에는 ‘준거’, ‘프로그램’이고, 2008~2012년에는 ‘변화’, ‘학생’, ‘문화’였다. 2013~2016년에는 ‘유아’, ‘비교’, ‘정부’였고, 2017~2019년에는 ‘과정’, ‘평화’, ‘세계’, ‘시민’, ‘중학교’였다. 이러한 키워드는 해당 시기에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여 연구의 주요 주제로 여겨졌고,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통일교육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선행연구들(김봉제, 2018; 김하연, 2018)과 마찬가지로 연구의 주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전 시기에 비교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된 시기에는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이 많았고, 키워드들 간의 네트워크도 증가하였다. 새롭게 등장하는 키워드들도 점차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서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다변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통일교육 관련 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동향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근 통일교육 관련 연구의 요청과 시대변화에 따른 연구주제는 활성화되지 않아 보인다. 통일교육원(2020)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육에서 나와 타자의 상호작용으로 쌍방 모두가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상호문화적 관점을 중시하는 논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통일부(2018b)는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평화의식 함양을 강조하면서, 사회문화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소통을 중시하는 자세와 관용과 평화의 정신을 키워나갈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통일교육 관련 연구에서 상호작용, 상호문화, 관용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통일교육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의 제목을 키워드 네트워크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일교육 관련 연구가 지금까지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였으며, 향후 연구되어야 할 주제와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일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통일교육 관련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교사들에게도 통일교육의 연구동향을 과학적이고 구조적으로 파악하며 유의미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본 연구를 토대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며, 통일교육 관련 저서나 언론기사 등의 동향을 분석할 때에도 본 연구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한편 연구대상을 논문의 제목만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 저자가 논문의 제목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연구의 내용과 결과가 제목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에서 제공하는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의 제목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저자가 선정한 주제어(keyword)나 연구 초록을 중심으로 한 분석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통일교육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폭넓게 살펴보는 것이므로 세부적인 연구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접수: 4월 2일 ■ 심사: 4월 24일 ■ 채택: 5월 7일

참 고 문 헌

- 곽기영. 2014. 『소셜 네트워크 분석』. 서울: 청람.
- 김상무. 2018.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KEDI 교육정책포럼 겸 KINU 통일교육 쟁점 공론화 토론회 자료집』
- 김석향. 2015. “『통일문제연구』 논문에 나타나는 집필진의 특성과 사회과학방법론의 적용 및 활용 동향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27권 2호, 1-38.
- 김봉제. 2018.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연구의 특성 분석.” 『도덕윤리과교육』 제60권. 291-320.
- 김용현. 1996. “통일, 북한문제 바로보기와 새로운 접근법 모색: 통일연구의 현황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8권 2호, 20-38.
- 김하연. 2018. “도덕과 통일교육 학술 연구 경향 분석.” 『윤리교육연구』 제48권 4호, 85-115.
- 김혜연·정희모. 2015.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작문 연구 동향 분석.” 『작문연구』 제26권, 33-69.
- 박은준·김영지·박찬숙. 2017.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국내·외 호스피스 간호 연구 주제의 비교 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제47권 5호, 600-612.
- 박정원. 2010. “통일법제 연구 현황과 향후 과제.” 『통일과 제도』 제1권, 151-196.
- 박성춘. 2012. “통일교육 학술연구 문헌 분석.” 『윤리연구』 제84권, 275-308.
- 박찬석. 2007. “도덕과 통일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논의와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제35권, 173-194.
- 박찬석. 2014. “통일교육연구의 분석을 통한 통일교육학적 성과연구.” 『초등도덕교육』 제46권, 279-307.
- 박치성·정지원. 201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 파악 사례.” 『정부학연구』 제19권 2호, 73-108.
- 변진언.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정치교육 연구 동향.” 『법교육연구』 제12권 3호, 73-93.

- 서준일. 2015.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수민. 2019. “유아 통일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제 19권 1호, 129-144.
- 손정위. 2017.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기독교교육 연구동향 분석.” 『기독교교육정보』 제54권, 179-214.
- 손정위. 2018.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교사’ 연구동향 분석: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교육 비교연구.” 『기독교교육정보』 제59권, 133-171.
- 송명현·김두경·김소영·이운소. 2016. “초중등학교 통일 교육과정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4권 3호, 1-20.
- 양승돈. 2013. “언어 네트워크 분석 (Semantic Network Analysis) 을 활용한 민간경비 분야의 연구 경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11호, 894-901.
- 연준모. 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창의력교육연구」의 연구동향 및 지식구조 탐색.” 『창의력교육연구』 제18권 4호, 1-22.
- 유석렬. 1994. “세계화시대의 통일윤리교육의 방향.” 『도덕윤리과교육』 제 5권, 139-169.
- 윤혜순. 2016.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통한 청소년 통일교육 관련 내용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3권 1호, 335-359.
- 안제노·허정필. 2016. “통일연구 동향에 관한 소고: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1970년~2015년).” 『평화학연구』 제17권 1호, 119-132.
-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수상. 2014. “언어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31권 4호, 49-68.
- 이수상. 2018.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활용과 한계』.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이재봉 외. 1991. “민주시민의식 강화와 통일에 대비한 국민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방향.” 『도덕윤리과교육』 제2권, 68-89.
- 이준기·하민수. 2012.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을 통한 중학교 과학영재들의 사실·가설·이론·법칙과 과학적인 것의 의미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제32권 5호, 823-840.
- 임운진·손다미. 2016.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연구 동향 분석.” 『대한공업교육학회지』 제41권 2호, 48-68.

- 임창호. 2014. “최근 한국기독교교육학 연구동향.” 『기독교교육논총』 제37권, 1-24.
- 전현준. 2015. “분단 70년 통일 분야 연구: 동향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55-88.
- 최윤정·권상희. 2014.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의 의미연결망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1권 1호, 241-286.
- 통일교육원. 2018. 『2019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
- 통일교육원. 2018b. 『평화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교육원. 2020. 『2020 통일교육 운영계획』.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교육원. 2020b.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한만길 외. 2001. 『남북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교육통합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한승호. 2017. “역대 우리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준비.”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2.
- 황서연·김정렬. 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 북한 영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18호, 95-120.
- Freeman, L. C.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3), 215-239.
- Nicola, De Bellis. 2010. *Bibliometrics and citation analysis : From the Science Citation Index to Cybermetrics*. Maryland: Scarecrow Press, Inc. 계량정보연구포럼 역. 2010. 『계량서지학과 인용분석: SCI에서 사이버메트릭스까지』.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ss.kr

ABSTRACT**Keyword Network Analysis of
Unification Education Research**

Kim, Tae-hoon & Kim, Young-soon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research trend of unification education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method. For this purpose, 1,286 paper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and executed in thesis were selected for analysis. After refining the keyword, we extracted 441 keywords that appeared more than twice from the titles of 1,286 papers in Korean journals and dissertations. By analyzing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keywords, degree, closeness, and betweenness centrality, the trends of research topics in unification education were examined. Also, based on the connection centrality, the network structure between keywords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paper was visualiz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number of studies by the government period increased quantitatively until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n decreas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most common keyword at almost all times was 'school'. When analyzing the centrality by period, 'peace', 'society', 'process', 'moral', and 'elementary' showed high values in common, and the keyword was gradually diversified, but the recent research topics that have been requested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ot reflected. These findings are a scientific method to identify the subjects of

unification education related research so far, and provide a basis for exploring the direction to be studied in the future.

Key words: Unification Education Research Trends, Keyword Network Analysis, Degree Centrality